

테마칼럼

국가와 사회

과거와 현재

다문화시대

교육과 미래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이지현

“ 내 자식의 앞길만 살피느라 속이고 살았던 머리를 들어 우리 사회의 과거도 되돌아보고 먼 미래도 내다보고 또 나와 비슷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처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정권이 바뀌면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사람들은 혼란을 느낀다.

새로운 정책에는 당연히 고쳐야 할 점, 새로운 사항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새 방침에 따라 각 학교와 가정은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기대 반, 우려 반의 분위기 속에서 자녀의 진로에 관심을 쏟는 학부모의 걱정과 불안은 클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은 늘어나게 될 사교육비를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 그렇게 해서라도 원하는 대학에 자녀를 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 등을 염려하게 된다.

거의 모든 학부모들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쏟고 세상의 변화를 바라본다. 어느 부모건 자녀의 장래에 희망을 걸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어 한다. 만일 모두가 원하는 좋은 수업,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 충분하다면 무슨 걱정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좋은 것은 누구나 원하고 있고, 모두가 원하는 좋은 것들은 아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지 않을 수 없다.

오랫동안 누적된 불만은 기존 제도의 변화를 촉발하고, 근본적으로 그다지 새로운 것도 없는 변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환호한다. 다시 바

뀐 제도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이길 방도를 찾기 위해 사람들은 온갖 정보와 전략을 찾고 이에 대처할 것이다.

눈치나 발 빠른 강력한 소수 집단은 미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그들을 뒤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은 때늦은 경쟁의 대열에서 우왕좌왕하게 된다. 단단히 각오하고 임하지만 이런 처절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인가 하고 탄식하게 된다. 그러나 경쟁에 뛰어들 후에는 남의 탓을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이기적 개인주의 체제의 속성이다.

앞으로 교육 및 입시 체제가 어떤 형태로 바뀌더라도 내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근심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이기는 자가 있으면 지는 자가 있고, 크게 차지하는 자가 있으면 크게 잃는 자가 있기 마련이다. 오직 이기는 것만이 장래 자녀가 나아갈 길에 큰 도움을 주게 되고, 또 그런 결과가 나중에 부, 권세, 명예 등을 독차지하는 데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서로가 벌이는 극심한 싸움은 더욱 가열되고 재산과 목숨을 건 가격적, 지역적 투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다.

결국 한정된 부, 권력, 명예를 향한 우리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이를 부추

기는 학교제도, 시험제도, 선발제도, 취업구조 등을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성찰하고 또 새로운 길을 함께 개척하는 길 외에는 뾰족한 방도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 자식의 앞길만 살피느라 속이고 살았던 머리를 들어 우리 사회의 과거도 되돌아보고 먼 미래도 내다보고 또 나와 비슷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처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성찰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어찌하여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또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일에 사로잡혀 지내야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시 이런 상황을 물려줄 것인가? 입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이들은 누구이며 가장 손해를 보는 이들은 또 누구인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불붙고 함께 생각하는 일이 없이 근본적 해결책을 기대한다는 것은 늘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느껴질 시대가 한동안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이다. (전남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 정부 '광주문화수도' 조성 의지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죽이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인수위가 사업의 핵심주체인 조성위원회를 폐지키로 한데 이어 한나라당은 실질적인 기획·집행기구인 문화관광부 내 추진단마저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국회사업인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자치단체인 광주시가 추진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의 조성위와 추진단 설치 조항을 삭제한 대신 광주시 소속의 '실시계획심의회'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심의회'로 개칭키로 했다. 광주문화도시 사업을 중앙정부 국책사업에서 지자체 사업으로 그 위상을 격하시킨 것이다.

조성위와 추진단의 폐지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노골적으로 축소,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중앙기구가 모두 사라지고 지역단위의 심의기구만 남게 되는 상황에서 사업규모와 위상의 축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협의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주지역 최대 현안 사업에 대해 공개토론회나 지역민의 여론수렴 과정 없이 사업추진기관들을 강리코 폐지키로 한 행위는 광주문화도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 작정임을 공언한 꼴이다. 또다시 '호남 푸대접'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게 고서는 이 같은 불상사적인 일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호남지역민의 염원과 소망을 저버리는 광주문화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

'5+2 광역경제권' 기대보다 우려 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전국을 수도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충청권, 동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5+2 광역경제권'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대비된다. 참여정부가 수도권을 억제하면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의 발전을 추진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수도권과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의 발전을 추진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수도권과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의 발전을 추진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광주와 전남의 입장에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지방이 주도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산업, 의료, 교육, 문화 등의 기능을 갖춘 인구 500만명의 광역경제권을 조성한다지만 재정이 열악한 호남의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을 지 의문이다. '창조적 광역발전'이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서남권 종합

발전계획'과 기업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혁신도시 건설에는 변함은 없지만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마당에 수정은 불가피해졌다. 특히 전북의 새만금사업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광역경제권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맞물려 있다. 자율과 효율성만 강조해선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겨 신성장동력을 일으키는 데는 지방을 희생 불능의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도 철저한 대비해야 한다. 광역경제권이 차기 정부의 확고한 정책인 만큼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 지역발전이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핵심 인프라 확충에도 공동 노력해야 바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임선택.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면 어떨까? 아마도 오래 전에 인류는 멸종했을 것이다. '안과 의사가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있겠지만 얼마 전 수술실에서 간호사들과 나눴던 대화다. 망막수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한 총각 이야기다. 수술대에 누워있는 총각은 수술 전부터 사시나 무 펄트 바르르 떨고 있었다. 수술이 순조롭게 끝나고 덮어놓은 수술포를 걷어내고 봤더니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었다. 지금까지 진료 경험에 의하면 분명 남자는 여자보다 통증에 약한 것 같다. 그러나 아픔과 통증은 남자·여자, 환자·의사의 공동의 적이다. 특히 눈은 통

가장 강력한 진통제는 '믿음'이다. 증에 대단히 예민한 조직이다. 당뇨망막증이 심해지면 망막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한다. 30~40년 전만해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증세가 심해져 레이저나 망막수술을 하지 못해서 실명이 되기도 했다. 당시엔 통증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눈을 제거하기도 했다. 눈을 살려야 할 안과 의사가 많이 있다. 지금은 병든 망막 중에서 주변부 망막을 레이저로 파괴시켜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병을 악화시키는 나쁜 물질을 생성을 막아준다. 가장 중요한 망막중심부라도 살리기 위한 시술이다. 주변부 망막을 상당히 파괴해버리면 시야가 좁고, 밤눈도 어두워지는 후유증이 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치료법이다. 레이저 치료라고 하면 왠지 좀 고통한 듯하지만 이걸 완전히 막는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낮추고 레이저 빔을 망막에

기고. 이기신. 광주는 지난 5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과거 소비도시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생산도시, 경제도시, 문화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꿈으로만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불과 6~7년 전 31억 달러이던 수출액이 광주시민, 지역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혼연일체 되어 지난해에는 102억 달러 수출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일궈냈다. 이는 부산·대구를 앞지른 것으로 광주가 명실공히 경제도시로 자리매김 했다는 증거이다. 이제 광주는 수출 100억 달러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할 때다. 또한 광주의 지속적인 발전

U대회 유치 세계속의 1등 광주로. 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신성장 동력의 지렛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광주 발전의 좋은 동력이 될 것이다.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제전인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광주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광주시는 2002 한·일 월드컵, 2005 피스컵 코리아,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2007 광주 세계여성평화포럼, 2007 전국체전 등 대규모 국내·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저력을 보여줬다.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또한 광주 발전을 위한 도시마케팅의 핵심 매개체로 작용할 것이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미칠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다. 생산 유발 효과 9천5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4천577억원, 고용창출 효과 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간접적인 효과로 국제적 인지도·신뢰도 향상

無等鼓. 오는 8월 8일 오후 8시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이 200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1일 올림픽 개막 D-200을 맞아 베이징 곳곳에서는 대대적인 기념행사가 벌어져 축제가 머지 않았음을 알렸다. 베이징올림픽 메인스타디움으로 거대한 새 집 형상을 한 '나오차오(鳥巢)는 완공 단계에 들어갔다. 단일 종목 경기장도 마무리 단계에 한창이다. 1964년 도쿄올림픽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 일본과 한국이 국가 위상을 크게 높였듯이 중국도 올해 '베이징 축제'를 디딤돌 삼아 세계의 열강으로 도약한다는 계산이다. 중국은 2008 올림픽과 2010 상하이 세계박람회, 같은 해 광저우(廣州) 아시아안계인 등 3개의 '빅 이벤트'를 통해 초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큰 잔치판을 우리도 놓칠 수 없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과 가까운 한국과 일본에서는

장애이용 기능성 의복 나왔으면. 가까운 친척 중에 장애인이다.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 생활에 큰 불편은 없는데 유독 옷을 입고 벗을 때 불편을 느낀다고 호소한다. 장애인 의복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 의복은 무엇보다도 혼자서도 입고 벗고 용변도 잘 처리할 수 있게 기능적이어야 한다. 또 두 단계 정도의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도록 패딩도 빼었다 하는 벨크로 테이프나 신축성 있는 고무줄 밴드, 다양한 용도의 주머니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같은

우먼 쉬운 파워핸들 경운기 만들어 달라. 열마진 고향 시골 마을에서 또 경운기 사고가 일어났다. 벗집을 경운기에 여러단 싹고 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급회전길에서 핸들을 꺾지 못해 논두렁으로 빠져버린 것이다.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병문안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경운기는 위험한 기계라고들 한마디씩 했다. 덩치가 훨씬 큰 트랙터나 화물차는 초등학생들도 가볍게 돌릴 정도로 핸들 운전이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기11간1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